



발행인 김선태 주교 | 주소 55036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편집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대표전화 (063)230-1004 | 팩스 (063)230-1175  
홈페이지 | http://j catholic.or.kr | E-mail | catholic114@hanmail.net |



교구장 사목교서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전주가톨릭신학원

① 김선태 주교(전주교구장) ② 윤태종 신부(신학원장) ③ 이정석 신부(신학원) ④ 김기남 신부(신학원) ⑤ 황의현 신부(영성신학 교수/서학동성당) 외 직원

**입당송** \_ 시편 28(27),8-9 참조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대영광송>

**제1독서** \_ 욕기 38,1,8-11

**화답송** \_ 시편 107(106),23-24.25-26.28-29.30-31(© 1 참조)

-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

**제2독서** \_ 2코린 5,14-17

**복음환호송** \_ 루카 7,16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복음** \_ 마르 4,35-41

**영성체송** \_ 시편 145(144),15 참조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주보 <숲정이>는 전주교구의 역사이고 소식이며 선교입니다. 성당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송호석 실베스테르 신부  
(우아동성당)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하느님을 떠나서 혼자 세상을 방황하다가 참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불신의 계기가 되

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이 잠잠하고 평안하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이 평지풍파가 계속 일고 있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는 하지 않는지?’ 이럴 때 제자들은 누구를 찾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스승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스승 예수님께서 자기들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 그들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셔서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다기보다 그렇게 해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을 자기들 배에 모시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바다의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고난과 죽음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요한 1서에서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라고 전해 주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1요한 5,4)

“갓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야고 1,2-8)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바다에는 항상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닷가에 나가보면 아무리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에도 작은 물결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에도 항상 크고 작은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고험(苦海)라고 합니다. 바오로 사도들 태운 배가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사도 27,14 참조)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폭풍을 만날지 모릅니다. 사업이 실패를 해서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1년 내내 땀 흘려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망쳐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을 잃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에 많은 시련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언제 어디서 어떤 시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꼭 깨닫고 명심해야 할 것은 인생의 풍랑, 신앙의 풍랑, 시련의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위험이 몰아치는 우리 인생의 위기에 잊지 말아야 할 해결책은 “나를 믿으라.”는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임을 기억하며 확고한 믿음을 간직해야겠습니다.



## 용서에 대한 심리 산책 2

금년 전례력에는 흔치 않은 연중 10주일이 있었다. 제1독서(창세 3,9-15 참조)에서 아담은 알몸인 것이 두려워 숨었다고 고백한다. 어찌 알몸이 두려운 일일까?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릴케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 “만약에 내가 나를 만난다면 나는 거기에서 도망치고 말거야!”라고 했다는 말이 떠오른다. 인간에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두려운 일일까? 뱀은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라며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은 “먹음직하고 ...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라고 외친다.



낙원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  
(마르크 샤갈작, 1961)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정의롭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세상을 기대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거둬서 상처를 준다. 착하게 살아도 복이 오지 않더라. 악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 억울하고 서럽고 슬프다. 가슴이 미어지고 마음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 대부분은 차라리 죄악에 가깝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하고 질은 어둠에 빠진다.

아무리 자신을 하느님의 자녀로 여기며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싶지만, 세상을 통해 비추어진 자기 모습은 참으로 처량하고 비참하다. 세상은 돈과 권력, 학벌과 지위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를 무시하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길이다. 이때 용서란, 삶의 기술 중의

하나다. 세상의 관점과 평가에 대하여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자신의 결단이다. 물론 이 결단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알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



김정민 라자로 신부  
(아중성당)

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세상이 얼마나 두려울까? 세상이 무서운 것이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내적 부끄러움이 세상을 두려운 곳으로 만든 것이다. 어쩌면 용서란, 자기 수용에서 출발하는 삶의 기술인지도 모른다. 우리 자신이 자기를 수용하는 데서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타인의 내적 부끄러움에서 비롯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상 의미 없으며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 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느님이 주신 자기 존재성보다 세상의 비교평가와 판단에 의한 것을 자기 존재인 양 믿고 사는가? 결과적으로 인간은 세상이 두려워 세상의 기준과 가치 평가에 자신을 맞추어 살게 된다. 우리의 내면은 생존 문제를 비롯하여 출세, 성공, 재물과 재산, 학벌과 능력 중심의 가치관에 따라 재구성된다. 인간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신의 내면세계를 잃어버린 셈이다. 자기를 잃어버렸다. 그렇다고 잃어버린 자기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수치심이라 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을 극복해야 한다. 세상의 논리로는 점점 갈등과 불화에 빠져들 뿐이다. 사람 사이에서의 용서는 화해를 향한 하나의 과정이지만, 우리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는 자기 가치의 회복에 관한 일이다. 용서는 덕(德)이라기보다 하느님의 초대인 신앙에 가깝다.



## 첫영성체 가족피정 프로그램 안내



동성당 8가족과 삼천동성당 9가족, 총 17가족 38 명이 참여하였으며, 3차 2022년 12월 교구 내 각 본당에서 총 14가족, 38명이 참여하였다.

부모와 자녀가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여, 특히 성경 가훈 만들기를 통해 하느님 말씀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첫영성체 가족 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이미원(교구 기자단) |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골로 3, 14)

자녀의 첫영성체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가정이 신앙의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첫영성체 가족피정은 본당에서 첫영성체를 마친 자녀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들이 성체 성사의 의미와 은총을 알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사랑으로 일치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영성체 가족피정은 2021년 11월 문정성당 10 가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2차 2022년 7월 부송

### 2024년 제4차 첫영성체 가족피정

일정 : 7월 13일(토)~14일(주일)

8월 10일(토)~11일(주일) 총 2회 예정

장소 :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

대상 : 첫영성체를 받은 자녀를 둔 가족  
(선착순 20가족 모집)

문의 : 교구 가정사목국  
063-285-1031

#### 31년 전통 아줌마 냉면

함열 현대화시장 입구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4시  
김종익(야고보) 이준순(까리다스)  
063-862-2890

#### 전주향외과(구, 항병원)

치질·하지정맥류·탈장  
위대장내시경·국가건강검진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카), 이관재, 황정환  
228-6002 삼천동 세창짜임APT 맞은편

#### 전주미르치과병원

진료문의 063)224-7700  
이선하 크리스티나 정희웅 프란치스코  
허선 세라피나 정자실 소화테라사 김동욱 요셉  
중화산동 은하아파트 사거리 (백제대로218)

#### 진선미 꽃집

전국 꽃배달 서비스  
범근배(방지거),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063)222-0004 / 010-3678-2628

####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피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 문실버요양병원(구, 문병원)

가톨릭 신자 내원 시 우대 혜택  
원장 : 문지식 레나도, 기순중 안젤라  
위치 : 경원동 KT 사옥 옆  
063)282-8833~6/284-2918

#### 온누리 바른척추&통증관리

목·어깨·팔·허리·다리  
척추 골반 통증 및 체형 관리  
최민준 시몬 010-3684-5544  
효자동 신기독병원 맞은편

#### 아름다운 김현숙안과

쌍꺼풀수술·상안검성형술·하안검성형술  
성형안과 정희원  
원장 김현숙 레지나  
신시가지 국민은행 5층 063)225-7717

#### 성바로복지병원

양·한방 협진, 수술 후 회복기, 암 환자  
만성질환, 기타 요양이 필요한 질환  
샬트르성바로수녀회 운영  
063)249-3300~3302



### 전주교구 베트남 공동체 주보성인 기념미사

교구 이주사목국(국장=김종성 신부)은 6월 9일(주일) 창인동성당에서 교구장 김선태 주교의 주례로 200여 명의 베트남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베트남 공동체 주보성인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칸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베트남, 한국순교복자수도회)의 동시통역으로 거행된 미사에서 김 주교는 <삶의 절대적 기준>은 인간적인 것과 하느님의 뜻 가운데 하느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우선된다는 가르침이라면서 “한국에서 살든 베트남에서 살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에 따라 인생길을 걸으면,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과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공동체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일(오후 5



시)에 150여 명이 창인동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며, 상반기 유아 세례와 혼배성사를 실시, 매 미사때 약 50여 명이 고해성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7월 중에 예비신자 교리(성탄반) 시작과 혼인강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취재 : 노태영(교구 기자단), 사진 : 교구 이주사목국 제공 |

### Photo 소식



#### ▼ 축동성당 견진성사 6월 16일(주일) <사진 : 본당 제공>



#### ▲ 덕진성당 본당설립 60주년 기념미사

6월 9일(주일) <사진 : 본당 제공>

#### ▲ 제27회 교구 성체대회

6월 1일(토) 천호 <사진 : 김도숙(교구 기자단)>

- 제22차 소공동체 전국모임 개막미사  
6월 24일(월) 오후 2시 평화의 전당
- 사목평의회  
6월 28일(금) 오후 4시 30분 교구청
- 사목방문 및 견진  
6월 30일(주일) 오전 10시 원평

이번 주 교구 행사

- 6월 24일(월)
  - 전주 사제양성후원회 월레미사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 태아와 어린이 축복미사 (오전 11시 평화의 전당)
- 6월 25일(화)
  - 군산 사제양성후원회 월레미사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교정사목 정읍 봉사자회 (오후 4시 20분 연지동)
- 6월 26일(수)
  - 사제 상설 고해성사(오후 4시 유항검관)
  - 전가대연 농촌봉사활동 (~29일, 가톨릭농민회 진안분회)
- 6월 27일(목)
  - 사회복지시설 중간관리자 연수 (~28일, 평화의 전당)
- 6월 28일(금)
  - 우리농 30주년 기념행사(명동)
- 6월 29일(토)
  - 카리타스봉사단회(오후 2시 유항검관)
  - 통합 교리교사학교 3차 (오전 10시 유항검관)
  - 창세기학교(오전 10시 유항검관)

- 이주사목 후원.봉사자 월레미사 (오전 10시 30분 우림)
- 전주교구 레지오 도입 70주년 준비위원 협의회(오전 11시 평화의 전당)
- 6월 30일(주일)
  - 훈인강좌(오전 9시 40분 평화의 전당)
  - 본당 선교분과위원 교육(오후 2시 교구청)
  - 이주민 대표자회의(오후 2시 유항검관)

교구 내 알림

- 사제부모회  
6월 29일(토) 오전 10시 30분 평화의 전당
- 천호성지 첫 목요일 성시간 및 특강  
7월 4일(목) 오전 10시 성시간  
오전 11시 가정미사  
강의 : 오후 1시(참가비 무료)  
"사랑의 기쁨" 해설
- 청년 성령 피정  
7월 5일(금) 19시~7일(주일) 17시  
장소 : 평화의 전당  
문의 : 다니엘선교단 010-6773-7580
- 전주교구 말씀·치유의 기도회  
일시 : 매주금요일 7:20~11:30  
장소 : 치명자산성지 내 자비의성전  
주최·주관 : 전주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교구 밖 알림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 입양 상담  
문의 : 02)764-4741~3  
www.holyfcac.or.kr

-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7월 개강, 각 6주)  
영성과 심리의 통합 첫 번째 길  
구약성경 아카데미: 시편 해설  
룻을 읽자!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청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 성마리아 재속회 성소 모임  
대상 : 재속회에 관심 있으신 45세 이하 미혼여성(제3회와는 다름)  
시간 및 장소 : 전화상담 후  
문의 : 010-6688-3863
- 제19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대상 : 재생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 활동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  
접수 : 6.3(월)~7.19(금)  
cbckcee@cbck.kr  
문의 : 02)460-7622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 제24회 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미국-최고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옥스퍼드 영어캠프 (손흥민 토트넘, 서유럽투어)  
사이판-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문의 : 02-734-0999  
www.pbccamp.com
-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안내  
일시 : 언제든지 문의 받습니다.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 061-382-2214/010-7159-9674

**제주 성이시들 자연 순례 피정**  
성이시들 목장내 성지에서 십과 제주 여행  
추라도성지포함: 7.1~4 / 9.11~14 / 10.5~8  
우도포함: 7.12~14 / 7.20~22 / 7.25~28  
02-773-1455 / 064-796-4182

**하늘고속관광 국내 성지순례**  
제주도(추자도) 성지순례  
2024년 9월 24일(화)~9월 27일(금)  
최석재 스테파노  
063-286-9595 / 010-3044-5009

**라파엘여행사 가을특선 성지순례**  
9.11 추석특선 알프스와 중세수도원 (545만원)  
10.13 성모님 3대말현지 13일 (485만원)  
10.22 이탈리아 일주 10일 (520만원)  
유재규 요한 02)778-8565





부제품 후보자 선발 예식(2023.6.21)

## 부제품 후보자 선발 예식이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교회 직무는 주교, 사제, 부제라고 불리는 이들이 여러 품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헌장 제3장 교회의 위계 조직, 28항) 이를 풀어 보면,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성화시키며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해야만 하고, 이를 선발하는 성사가 바로 성품성사인 것입니다.

그 성품성사의 첫 번째 단계는 부제품인데, 부제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①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고(교회법 제1033조) ②철학과 신학 수업 5년 과정을 마쳐야 하며(교회법 제1032조) ③자필 작성한 청원서를 관할권자(교구장 주교)에게 제출한 후, 성직 후보자 선발 예식을 받아야 합니다.(교회법 제1034조) ④성품에 승격되기 전 적어도 5일간의 영성 수련을 하고(교회법 제1039조), 서품식에 참여할 때 나이는 만 23세 이상이어야 합니다.(교회법 제1031조)

이처럼 부제품 후보자 선발 예식은 사제품 지망생들이 성품을 받기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성품을 받겠다는 결심을 교구장 주교님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부제품 후보자들은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독신 생활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수락하게 되고,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봉사하겠다고 다시 한번 엄숙히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부제품 후보자 선발 예식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 2025년도 부제품 후보자 선발예식

일시 : 7월 17일(수) 오전 10시 삼천동성당

집전 :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한재승 요아킴  
(연구2년, 삼천동)



박민규 요셉  
(연구2년, 중앙주교좌)

2025년 부제품 후보자 ▶

